"마음 활짝 열고 살아가세요"

〈1면에서 계속〉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런 무모한 계획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가신 조상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재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상황임을 여러분, 깊이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앓고 나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고 나니 새삼스레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열려야 해요. 세상 사는데 가장 문제 많은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가족, 친구, 직장…. 늘 거기가 문제에요. 내 마음을 항상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쉽게 안 열려요.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써야 마음이 열려요. 순간 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산다면 분명 모든 것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려 마세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앓으면서 '좋다, 이 과정에서 내가 수행자로 보다 성숙해지리라' 생각하면서 투병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달마 스님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그 마음이 한 번 비틀리고 억눌리면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 없구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마음이고, 비틀린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빨리 풀어야죠. 옹졸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빨리 가서 비워야 해요.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마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참선하고 독경하고 염불하는 것은 내가내 마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생이 곧 학교에요. 이 순간순간을 제정신 차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 사는 게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김강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76호 17면 '선지식을 찾아서' 자광 스님 기사에 실린 오도송은 자광 스님의 시이며 오도송은 별도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광 오도송'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았네(覺). 마음 마음 마음이여
모양도 색깔도 부피도 무게도 없는 마음
한계가 없으니 우주를 싸고 남았고
가고 옴이 없으니 항상 존재하고
무게가 없으니 우주가 짊어졌고
성내고 기뻐함이 없으니 항상 평화롭고
색깔이 없으니 각양각색을 통합하였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도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진법계(眞法界)의 실상이여
만상이 들락거리는구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 청정기운 선연"

원담스님을 추모하며

3월 18일 원적에 든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의 49재가 5월 4일 수덕사에서 봉행된다. 49재를 앞두고 수덕사 유나 우송 스님이 원담 스님을 추모하며 쓴 글을 싣는다.

방장스님은 임종이 눈앞에 왔는데도 놀라고 황망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했으며, 안타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스님은 병고 중에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모두 만나주셨다. 아픈 것도 드러내 놓고 아프셨다. '오늘 내일' 하는 급한 중에도 말이 없으실 뿐, 표정은 언제나 따뜻했다. 미련이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방장스님은 시자가 하자는 대로 다 맡겨버리고 이래도 저래도 도무지 본인의 의지가 없었다. 스님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신이 저리도 초롱초롱 하신대 웃고 장난하고 하실 것은 다 하시면서 왜 호령을 안 하실까, 왜 본인의 의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고, 살고 죽는데 이미 무심해 버린 것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었다.

어느 날 방장스님께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 물건도 짓지 말라'(十二時中 不作一物)라는 휘호를 주셨다. 휘호를 받을 때는 참 좋은 법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방장스님께서는 수용하시는 당신의 삶을 글씨로 써주신 것이었다.

산중의 대중들은 방장스님의 병환으로 하루하루가 마음이 아픈데, 막상 당신은 아프면 아픈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정말 일이 없었구나, 훨씬 벗어나서 노니셨구나, 한가했구나, 당신의 휘호대로 수용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다.

병고 속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나 건강한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나 그 틀을 넘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그 법을 수용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서로 틀릴 것이다. 방장스님께서는 병의 고통도 극락의 연화대가 되어 이 꽃잎 저 꽃술로 무심히 노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방장스님의 임종이 가까워 올 무렵 상좌 법정 스님이 방장스님 귀에다 입을 대고 "스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그치듯이 물었다. 그러자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분이 느닷없이 벼락 치듯이 '할'을 하셨다. 옆에 있던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성성한 기세에 위압을 느끼면서도 가슴 속이 시원했다.

평생을 쓰시던 방장스님의 육신으로부터 스님의 한 물건이 떠나고 나니, 염하는 자리 상식 올리는 자리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주객(主客)이 서로서로 법이 있어서 육신 또한 대법(大法)이다. 서로 범할 수 없는 것이 불불(佛佛)이 불상견(不相見)이다.

벽초 노스님은 염하시면서 법주가 "목욕이요"하면 "예"하고 대답하시고, "착복이요"하면 "예"하고 대답해 주셨다. 여법하게 염불하며 법식대로 순서 따라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장스님은 까다롭지 않으셨다. 언제나 시원하시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셨다. 주인공 찾는 일에 대해서는 금방 놓친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늘 차분하고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다"

보물을 손에 쥐여 주듯이 친절하셨다. 제반사에서도 방장스님은 웬만하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가도록 뒷말을 하지 않으셨다.

장례 모시는 5일간의 날씨는 참으로 따뜻하고 화창했다. 내내 화창하던 날씨가 다비할 때는 금방 구름이 기압을 낮춰서 불꽃이 위로 치솟지 않고 적당히 진정되면서 연기도 거의 없이 금방 속불로 이어졌다. 역대 다비 중에 화력이 이렇게 강렬한 것은 처음이었다. 방장스님의 불덩어리 같은 한 생각이 이렇게 방광하는가 싶어서 옷깃을 가다듬었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 밝고 맑은 청정의 기운이 선연하다.
어디선가 깊은 환희가 울려온다.
한없이 풍요롭고 편안하다.
천천만만 인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다.
뜨거워서 물러서면서도 스님이 타고 있는 불꽃 속으로 자꾸자꾸 다가선다.

다비를 마치고나니 날이 어두워지고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방장스님은 가셨지만 산과 숲은 스님을 보낼 수가 없어 밤새도록 울었나보다. 방장스님께 불명을 받은 팔십 노구(老軀)의 유심거사가 상중에 추도 한시(漢詩)를 지어올리고 조문하고 갔다.

원월영담만춘광 (圓月影潭滿春光) 둥근 달이 못에 비춰 봄빛이 가득한데
덕숭산봉만진원담(德崇山峰巒盡圓潭) 덕숭산 크고 작은 산봉우리 모두가 원담입니다.

덕숭산의 고요와 새벽의 대종소리에 방장스님께서는 가셔도 가신 적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 중만한 스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옳을까. 내가 입산한지 몇 해 되지 않아 혜륜 노사께서 열반하셨다. 자고새면 뵙던 노사를 다비장에서 한줌의 재로 날려 보내고 돌아오니 참으로 궁금했다.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방장스님께 물었다.

"혜륜 노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방장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방장스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 이미 스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이 되었다. 이 한 물건을 "이"로 돌이키는 정진일색과 너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받드는 일, 이것이 방장 스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한가해진다.

"스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 본다. 방장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다. 스님께서는 지금도 "니가 있는 곳을 살피라"고 하실까? 있는 곳은 차치하고 "'이 뭣고'나 놓치지 말라"고 하실까?

방장스님이 가끔 회고하셨던 당신이 발심할 때의 일은 덕숭산 모든 대중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발심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방장스님이 어릴 때 만공 스님을 시봉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방장스님이 탁자 밑에서 몰래 팔상록을 보고 있는데, 만공스님이 가만히 와서 내려다보시고는 "그게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말을 못하는 어린 시자에게 만공스님은 단호히 꾸중하시기를 "지나가는 거지가 성불해도 너는 틀렸다."하시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세상이치를 다 통달하신 분, 모든 이들이 도인이라고 받드는 분, 하늘처럼 믿고 받들어 모시는 만공스님께서 "너는 틀렸다"고 단언하시니 방장스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때 방장스님은 어떻게 죽을까를 깊이 고민하다가 참선하다가 죽자고 결론을 내렸다. 죽기로 결심한 이상 모질게 잠과 추위를 이기며 죽기로 화두를 들었다. 깜빡 졸기만 하면 쫓겨나는 금오 스님과의 용맹정진에서 제일 나이 어린 납자로서 끝까지 버티어낸 것도 그때의 일이고, 불거자거(不擧自擧,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잡히는 것을 뜻한다)도 그때의 일이고, 삼처전심(三處傳心)의 대답으로 만공 스님께 칭찬받은 것도 그때의 일이다.

방장스님께서는 이 공부의 제일 첫째 조건이 발심이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다. 경허 스님이 발심할 때의 일과 만공 스님이 발심할 때의 일을 산중대중들은 방장스님의 법문으로 들으면서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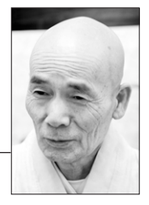
방장스님의 그 시절 그 풋풋했던 동자승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자가 되고 행자가 되자. 만공스님께 받은 그 충격의 발심으로 용맹정진하자. 스님을 길이 모시는 일이 달리 무엇이 또 있을까?

"주인공 찾는 일에는 금방 놓친 보물을 쥐여 주듯 친절하셨다"

방장스님의 이제(二祭) 분향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니 연분홍 진달래가 소나무 사이마다 지천으로 피었다. 우리들은 곧잘 '해동이 되고 진달래가 필 때쯤에 반가운 사람 만나자'고 약속하는데, 오늘은 누가 오려나? 이골 저 비탈에 저리도 진하게 웅성웅성 모두 나와 화려하게도 꽃피었는가. 무심했던 저 꽃들이 시리게도 곱게 눈에 잡힌다. 방장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향기는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다.

천안대비불간투(天眼大悲不看透) 대비의 천안으로도 뚫어 볼 수 없는데
수풍화우과전산(隨風化雨過前山) 바람을 따라 비가 되어 앞산을 지나간다.

방장스님의 사십구제를 즈음하여
미좌 우송 분향 삼배



우송 스님(수덕사 유나)

2008년 빛고을 연등축제

LotusLantern Festival

1) 연등법회

※일 시 : 5월 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광주공원 일대
※내 용
① 소원지 날리기 - 각자의 소원을 적어 에드벌룬에 묶어 상공에 띄움
② 부스운영 - 어린이 · 어른 모두 즐길수있는 전통놀이재현,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장엄등 전시, 목걸이 만들어 가져가기 등
③ 무료공양 - 밥차운영(자비신행회 협조)
④ 어린이 놀이경연대회-어린이날을 맞아 불자어린이들의 장기자랑 (오후 4시 20분 ~ 5시 20분, 광주공원 특설무대)
⑤ 공연-연꽃무, 심청전(미륵사 -목언스님지도)
⑥ 법고(法鼓)공연-각사찰 주지스님들이 직접나와서 시연

※법요식 : 개식 - 육법공양 - 삼귀의 - 반야심경 - 찬불가 - 환영사 - 격려사 - 축사 - 청법가 - 법문 - 발원문. 제등행진 준비

2) 제등행진

※사부대중 모두가 어울려 각종 전통등과 장엄물을 앞세우고 행진
행렬 순서 : 선발대 - 신도그룹단

1.선 발 대 : 깃발(3개) - 취타대(30명) - 장엄등(4ea) - 합창단(150명) - 운불련차량(20대)
2.신도그룹단 : 스님,기관장,재가신행단체장 - 차량공연(대북타고) - 신도1그룹(400명) - 신도 2그룹(400명) - 신도 3그룹(400명) - 풍물놀이(빛울림) - 신도 4그룹(400명) - 신도 5그룹(신행단체 포함 400명) - 연희단(30명)한마음선원

3) 대동한마당

※일반시민과 불자 모두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한데 어울려 노는 축제 한마당(안무 - 조선대학교 무용과 박준희교수)

맞이공연	본행사전 제등행진 팀이 도착하여 자리를 잡는동안 맞이하는 공연(도드리 / 얼쑤)
개 막	개막선언과 축하 팡파레(범종 3회) / 레이저, 폭죽
공 연 1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화려한 무용공연 / 조선대무용과, 대성여고
공 연 2	봉축 노래 및 연주 / 장성일 (톱연주, 요들송)
공 연 3	인기가수공연(김상배 - 몇미터 앞에 두고...) 범민스님(목탁새), 서경스님(하모니카연주), 무진스님 - 판소리, 무상스님(통기타)
공 연 4	청소년 댄스팀 공연(전국대회우승팀 포함) / B-boy 공연 인기가수공연(김미성, 이애자, 미화)
피 날 레	민요 전체 참가자 강강수월래 마무리 (불꽃, 레이저쇼, 바누방울등)

2008 빛고을 연등 축제 일정

행 사 명	날 짜	시 간	장 소
어울림마당	5월 5일(월)	오후 1시 ~ 6시	광주공원
연 등 법 회	5월 5일(월)	저녁 6시 ~ 7시	광주공원
제 등 행 진	5월 5일(월)	저녁 7시 ~ 8시 20분	광주공원 → 금남로 → 문화전당앞
대동한마당	5월 5일(월)	저녁 8시 20분 ~ 10시	문화전당앞

※ 광주불교방송 개국 13주년 기념행사

♤일 시 : 5월 22일 오후 3시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용 : 인기가수초청공연

부처님오신날 광주 · 전남봉축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동 산1번지 불교회관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전화 : 062_376_3223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보성건설